

추 모 사

“사람 인(人)자가 왜 서로 버티는 형상을 하고 있는지 아는가. 서로 버티어야 산다. 개인과 개인이 버티고 조직된 단체와 단체가 서로 버티고 2천만이 서로 버티고 버티어야 이 민족이 산다.”

이는 고하(古下) 송진우(宋鎭禹) 선생님께서 교육자로서 학생들에게 민족과 조국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위대한 삶을 호소하는 강연 내용이었습니다.

탄신 125주년을 맞아 선생님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며 삼가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의 예를 올립니다.

선생님께서 일본유학을 마치신 이후, 귀국하시어 중앙중학 교장에 취임,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주셨습니다.

당시 중앙중학은 3.1독립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운동을 계획한 장소로 알려지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계획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그로인해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출감 이후 동아일보 사장에 취임하신 후, 30여 년 동안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언론인으로서 사명을 다하신

선생님께서 8·15 광복 이후, 건국준비위원회와 맞서 민족주의 세력을 규합, 한국민주당을 결성하여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적극 참여하셨습니다.

특히 “파당을 초월하여 이를 환영하고, 이를 지지하고, 이에 귀일함이 타당한 대의명분” 이라 하시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법통을 강조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내세운 분단극복과 통일정부 수립구상이 민족의 살길을 여는 길임을 알고 계신 드문 선각자이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국권을 상실했던 한말의 상황과 매우 흡사하게 돌아가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 간에 서로를 경계하며 경제적인 이익을 앞세운 군사 연합을 꾀하는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과거사 반성을 유보한 채, 아베정권의 군사대국화가 추진되고 있어, 일본의 한반도 재침(再侵)의 시나리오가 다시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처럼 국제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정치지도자들은 단합하여야 함에도 외세에 의해 갈린 광복과 분단 70년을 맞이하면서도 좀처럼 이를 극복하려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 국적을 달리하는 국가들끼리도 자국의 이익 실현을 위하여 연합하고 있는데, 하물며 피를 나눈 형제끼리 앙숙이 되어 화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고하 선생님의 기일을 맞아 우리 후세들이 지난날 독립운동 선열들의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선생님의 외침처럼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한 평화통일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게 음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2015. 5. 8

광복회장 직무대행 안 홍 순